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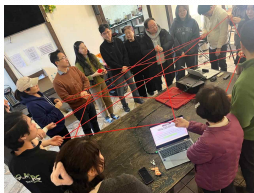
러시아 소식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눈보라와 폭설 두 친구가 맞부딪친다”라는 러시아 속담이 떠오르는 계절입니다. 바람은 매섭지만, 기도와 염려 덕분에 저희는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우정 선교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김영동 교수가 원장으로 섬기는 우정 선교 연구원이 주최했습니다. 우리 신학교의 부총장 다니엘 아키몹 박사는 ‘러시아 사회·문화·종교에서의 우정’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척박해 보이는 땅에도 우정은 씨앗처럼 심긴다는 고백의 발표는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1월 초, 러시아는 긴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쉼을 소비로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3일간의 신년 콘퍼런스에서 저를 비롯하여 네 명의 목회자들이 차례로 강단에 섰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새해를 새롭게 했고, 우리는 순종을 구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생과 학부생, 그리고 인솔 교수께서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침 한인공동체 겨울 수련회가 겹쳐, 그들은 땀 흘려 섬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수련회는 한층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인솔자이신 박재필 교수는 신학교에서 특강도 해주셨습니다. 목회자가 준비해야 할 자세에 대한 강의는 학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새해부터 ‘어머니 기도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난 뒤 나누는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눈물과 웃음이 섞인 작은 성찬과도 같았습니다.



러시아 선교를 위해 드려주시는 기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선교는 결국 무릎이기에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1. 이 땅의 분쟁이 속히 그치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2. 본 교회와 개척한 교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3. 신학교 운영을 주님께서 도우시며,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굳게 세워지도록
4. 시작하는 어머니 기도학교를 통하여 어머니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옆 사진은 아래 ‘생명의 길’에서 언급한 생존한 교우들을 교회에서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2026. 2. 21
러시아에서, 최영모 박경희 드림

생명의 길

1941년 겨울, 상트페테르부르크(당시 레닌그라드)는 도시라기보다는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고, 거리는 발자국이 아니라 신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조각의 빵이었습니다. 성인의 하루 식량 배급량은 125g. 쉽게 말하면 초코파이 3개였습니다. 소녀 타냐는 작은 노트에 가족의 죽음을 기록했습니다. “제나가 죽었다. 할머니가 죽었다. 료카가 죽었다. 바샤 삼촌이 죽었다. 료사 삼촌이 죽었다. 엄마가 죽었다. 모두 죽었다. 타냐만 남았다.” 그 일기장은 지금도 ‘생명의 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독일군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도시의 식량은 바닥나고, 굶주린 이들의 숨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워질 무렵, 한 가지 대담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도시에서 55km 떨어진 라도가 호수를 얼음길로 삼아 식량을 실어 나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얼음이었지요. 얼음 위로 30km를 달린다는 건, 말 그대로 ‘미끄러운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차가 파도와 같은 속도로 달릴 때 얼음이 공명하며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이미 수많은 트럭이 호수 아래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첫해에만 사천 대 중 천 대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문을 열고 한 발은 발판 위에, 한 손은 핸들 위에 놓고, 언제든지 뛰어내릴 준비를 한 채 운전했습니다.

운전병 니콜라이는 트럭이 얼음 밑으로 가라앉을 때 조수석의 동료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자신은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봄이 되어 얼음이 녹을 때 발견되었습니다. 손은 아직도 핸들을 꼭 잡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의 비문을 새겼습니다. ‘그대의 손은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늘을 향해 있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굶주린 시민들에게 빵이 도착했습니다. 시민들은 노래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따라, 우정의 길을 따라, 빵이 많은 사람에게 왔습니다. 지상에서 이보다 더 끔찍하면서 이보다 더 행복한 길은 없습니다.” 돌아갈 때는 도시의 시민들을 태워 피난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그 좁은 길을 ‘생명의 길’(도로가 지즈니)이라 부릅니다.

해마다 1월 27일, 독일의 포위망이 풀린 날이면, 교회에서는 생존한 분들에게 꽃과 선물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 얼음 위 생명의 길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하늘 위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포위망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2천 년 전의 어느 금요일, 우리에게 박히게 될 세 개의 못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섯 시간 동안 대신 박히셨기에 만들어진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은 위험했기에 밤에는 헤드라이트를 끄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우리의 길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한 대 이상의 차량을 파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적의 포탄을 피하기 원했지만, 죽음만이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생명의 길 804번째 차량 운전자 레오니드 바르코비치의 회고)